

건강한 학교, 든든한 보건 파수꾼

인천광역시교육청 변지영 보건관리자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사진 김민정

변지영 보건관리자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든 그 쓰임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 출근길에 그는 생각한다.
누군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겠다고.

입사 전 이미 완성된 보건관리자

변지영 보건관리자가 소속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은 안전·보건관리자, 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 변지영 보건관리자는 6,500여 명의 학교 노동자들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작업환경 점검·개선, 유해·위험물질 관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입사 전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쌓았던 실무경험과 가톨릭대 보건대학원을 수료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실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줬다.

“교육청은 타 사업장에 비해 노동자 규모나 관리범위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자 어려움입니다. 충분한 공부와 현장 경험 없이 바로 업무에 뛰어들 수 없는 구조죠. 본청에 소속되어 조직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성을 다해 배워왔고, 현장에서는 진취적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해 나가는 변지영 보건관리자는 진정으로 완성된 보건관리자다.

변지영 보건관리자

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

이달의 한마디

"때로는 소신 있게, 오늘 더 진취적인 보건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21년 급식조리사에게 발생한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됐다. 그로 인해 급식실의 작업실태와 환경개선에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었다. 인천에서도 폐암 1기 진단을 받은 급식노동자 2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산재 심사중으로 파악된다. 또한, 올해는 전체 급식종사자에 대해 폐암검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조리흙(fumes, 연기) 노출 정도와 후드의 형태, 환기 방식, 제어 유속 측정 등 환기 실태 파악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까닭에 변지영 보건관리자의 역량이 집중되는 곳은 학교 급식실이다.

“최근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 등 학교 노동자들의 건강 이슈가 여럿 있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급식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문헌검토, 대책수립,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역학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탰어요.”

급식노동자 사건으로 교육청은 관할 학교에 대해 급식실의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도 준수하고자 신설학교 및 리모델링학교는 설계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질환이 의심되면 추적 및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기준을 마련하여 급식노동자 대상 저선량 폐 CT검진을 실시하였고, 질환자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상담, 교육, 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죠.”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보람을 느끼는 천상 보건인

“교육 행정기관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관리대상, 업무범위, 담당자 지정 등 많은 혼란이 있었고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어요. 현재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어요. 보건관리자로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밖에 소외되었던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애쓴다. 학교의 급식,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업무 노동자의 건강과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근로활동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급식실 환경개선 관련 이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직업 관련 질환에 빠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관리를 심도 깊게 할 거예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